



한국문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실험들...
독립 문학 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시대의 문학전문지
『쓰름-문학의 이름으로』 제3호 발행

문학실험실 편 / 140*240 / 484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발신: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

담당: 최하연 (문학실험실 사무국장) 010-4212-0752

대중문화 시대에 한국문학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특집 마련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난해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의 세 번째 호가 나왔다. 이 잡지의 기본 방향은 문학의 본질을 사유하는 질문 그 자체를 향해 있다. 잡지의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전 지구적 문화산업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에 맞서는 ‘강렬한 부정의식과 저항적 실험 정신을 문학 내부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해온바, 이번 호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배어 있는 깊이 있는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특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간호에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위상’을 찾겠다는 진지한 도전 정신으로 ‘한국문학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물음으로 특집 전체를 채운 뒤, 제2호가 그 후속으로서, “문학의 전위”에 관한 입체적인 성찰의 자리를 마련했다면, 이번 제3호에선, “문화산업 시대의 대중문화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의 ‘문학’의 자기 갱신과 그 발판을 모색하고자 했다.

분명, 그 모색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공간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암중모색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 거대한 세계 체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인바, 어찌 보면 우리는 김현이 말한 ‘무지와 싸움’에 직면해 있는 꼴”이라는 편집인 이인성(소설가)의 말대로 이 “무지와 싸움”은 자본의 작동 논리가 변화무쌍한 변신을 거듭하는 한,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계를 주체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이 싸움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실존적 선택이라면, 어떤 작은 단서가 구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번 호의 특집 ‘문화산업 시대의 대중문화와 문학’을 마련”했다는 전언은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이상길(문화평론가, 연세대 교수), 김수아(문화평론가, 서울대 교수), 신현준(음악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이수형(문학평론가, 명지대 교수), 김대산(문학평론가) 등의 그 면면이 범상치 않은 특집 필진의 글들은 최근 유행하는 가벼운 소통의 방식보다는,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정통의 방식으로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2회를 맞는 <문학실험실 포럼>의 발제문 전문도 실려

이번 호에는 지난 9월 23일 성황리에 마친 ‘제2회 문학실험실 포럼-한국문학의 과잉과 결여’의 발제문 전문도 함께 실려, 읽을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이제, 한국문학을 한 번쯤, 정말 밖에 있는 타자의 시선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한국문학 역시 세계화의 물결을 타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학 사회는 여전히 좁은 자기 땅덩어리에 갇혀 우물 안 개구리들처럼 울어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자기반성적 의구심을 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전환시키고 공론화시켜보자는 것이 이 포럼의 소박한 의도이다. 단순히 장르별로 나뉜 네 분의 발제만으로도 이 주제가 충분히 다루어질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한 문학인들의 자의식이 퍼져 나가 보다 넓고 깊은 토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편집 의도대로, 답을 주는 포럼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포럼으로써, 김인환(문학평론가, 고려대 명예교수), 정과리(문학평론가, 연세대 교수), 조강석(문학평론가, 인하대 교수), 백지은(문학평론가)의 욕고가 실려 있다.

더불어 고 김현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학적 전망을 세워가고자 제정된 ‘제2회 김현문학패’의 선정사와 수상소감, 작가론도 수록되어 있다.

『숨』의 첫 신인추천작 소개, 그리고 국문학의 최전선에 자리한 작품들

이번 호에 실린 시와 소설 역시 풍성하다. 우선 문학실험실에서 첫 번째 배출한 신인 소설가 김효나 씨의 데뷔작이 눈에 띈다.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김효나 씨의 「2인용 독백」은 제목 그대로 대화체로 이뤄지지만, 분열된 독백체이기도 해서, 얼핏 우리가 희곡을 읽는 듯한, 더 나아가 실제 연극—그것도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효과를 자아낸다. 그러나 이 효과의 핵심은 그 반전에 있다. 머릿속에 펼쳐진 가상의 무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결정된 어떤 이야기의 연쇄적 행동들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는 희미한 이야기를 끝없이 더듬고 탐색하는 “말들의 풍경”인 까닭이다. 말 그 자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그 풍경은,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오로지 언어로만 체험할 수 있는 특이한 상상적 구조물을 조각해간다는 의미에서, ‘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 발현에 가까워 보인다.

그 밖에도 환상에서 더 환상으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치명적인 현실을 보여준 오한기의 소설을 비롯해, 이기성, 신영배, 임경섭, 황유원의 신작 시와, 소설가 서준환 씨가 새롭게 선보인 ‘텍스트 실험공간’의 「죽음과 변용-저 건너 붉은 하늘 아래」 등 흥미롭고 실험정신이 강한 작품들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명망 있는 법학자가 쓴 표절론도 새로운 시각 제공

특별기고 형식으로 실린 연세대학교 법대 남형두 교수의 「망월(望月)-배심원단을 위한 표절 재판 보고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문학계의 ‘표절’ 문제를 법리적으로 내밀하게 정리해놓았다는 점에서, 문인들과 지식인들이 참고할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그밖에 손정수(계명대 교수) 문학평론가가 심혈을 기울여 쓴 ‘이제하론’과 강정 시인의 ‘김혜순론’도 잡지의 풍성함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차례

특집

반(半)예술의 문화, 반(反)미학의 미학: 대중문화와 예술의 관계에 관한 사회학적 노트 | 이상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미디어 산업과 팬덤의 역학 | 김수아

K-pop, ‘글로벌’ 순환과 ‘로컬’의 불만? | 신현준

대중문학 또는 상업화 이후의 민주주의 | 이수형

주객 분리의 창조적 극복을 향하여: ‘장르소설’을 넘어서: 조하영의 조립식 보리수나무 의 경우 | 김대산

아방가르드와 송고의 시적 실천: 대중문화 시대의 한국의 전위 시 | 오형엽

특집에 덧붙여_현장의 목소리: 대중에 대한 의식

서울 시 감상기 | 김언

거대한 하나의 눈동자 | 김중혁

답을 내놓은 영화, 질문을 던지는 영화 | 이송희일

제2회 문학실험실 포럼

한국문학의 과잉과 결여: 상징의 과잉, 알레고리의 결여 현대시사를 조망하며 | 김인환
‘현재에 대한 열정’의 결여와 ‘평온한 상대주의’ | 조강석
빠져나가는 운동 한국 소설의 과잉과 결여 | 백지은
외눈박이의 허랑(虛浪): 한국 비평의 과잉과 결여 | 정과리

시와 소설

2인용 독백 | 김효나 신인 추천 작품
소녀와 새 외 2편 | 신영배
곰 사냥 | 오한기
연인들 외 2편 | 이기성
개켜진 검정 재킷 외 2편 | 임경섭
총림(叢林) 외 2편 | 황유원

텍스트 실험 공간

죽음과 변용 저 건너 붉은 하늘 아래 | 서준환

제2회 김현문학패 발표

김현문학패 소개
선정의 말
수상소감 나는 씁니다 | 김태용
‘사이’와 ‘너머’로 무한히 무화되면서 | 이제니
선정작가론 언어의 폐허에서 우유 짜기 김태용론 | 광영빈
말의 춤과 사이의 감각 이제니론 | 장철환

그때 그 실험

이미지를 되새김질하는 초식의 글쓰기: 이제하의 초식 을 다시 읽기 위한 시론 | 손정수

지금 이 언어

죽음의 춤이거나, 우주적 발광이거나: 김혜순의 시들 혹은 산문들 | 강정

시시비비

망월(忘月) 배심원단을 위한 표절 재판 보고서 | 남형두

편집의 말
이번 호의 필자들
지난 호 목차
신인 추천 원고 모집
문학실험실 후원 안내
문학실험실 신간 안내

제3호 필자 소개

(가나다 순)

강정 | 시인.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2년 『현대시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처형극장』부터 『백지의 산수』에 이르는 6권의 시집과 『나쁜 취향』 등 3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곽영빈 | 미술평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미국 아이오와대학 영화·비교문화학과에서 「한국 비애극의 기원」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제1회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강대, 한예중, 홍익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김수아 | 문화비평가.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시 보는 미디어와 젠더 (공저),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공저) 등을 펴냈으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연 | 시인.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98년 『시와사상』을 통해 등단하여, 『숨쉬는 무덤』부터 『모두가 움직인다』에 이르는 5권의 시집을 펴냈다.

김인환 | 문학평론가.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문학과 문학사상』부터 『언어학과 문학』에 이르는 12권의 문학연구서·비평서와 『에로스 와 문명』·『주역』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김중혁 | 소설가. 1971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났고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하여, 『팬겐 뉴스』 등 3권의 소설집과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나는 농담이다』 등 4권의 장편소설, 그리고 『뭐라도 되겠지』 등 2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김태용 | 소설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숭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풀밭 위의 돼지』·『포주 이야기』와 장편소설 『숨김없이 남김없이』·『별거승이들』, 그리고 가상의 시인 자코 드뤼망을 내세운 실험적 텍스트 성격의 시집들로 뽀바지 등 3권을 펴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효나 | 소설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자공예과 졸업했다. 2016년 『숲-문학의 이름으로』 이번 호로 막 등단하는 신인이다. 현재 비영리 예술단체인 '로사이드'를 운영하면서 전시 기획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발화모임 '줍줍'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남형두 | 법학자. 1964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표절론』이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백지은 | 문학평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독자 시점』을 펴냈다. 현재 <문장 웹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준환 | 소설가.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극작을 전공했다. 2001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하여, 소설집 『너는 달의 기억』·『파란 비닐 인형 외계인』·『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와 장편소설 『골드베르크 변주곡』·『로베스피에르의 죽음』을 펴냈다.

손정수 | 문학평론가. 1969년에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미와 이데올로기부터 소설 속의 그와 소설 밖의 나에 이르는 5권의 평론집을 펴냈다. 현재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영배 | 시인. 1972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태어났고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1년 『포에지』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기억이동장치』·『오후 여섯 시에 나는 가장 길어진다』·『물속의 피아노』를 펴냈다.

신현준 | 대중음악평론가.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여러 지면에 대중음악에 관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록 음악의 아홉 가지 갈래들』부터 『가요, 케이팝, 그리고 그 너머』에 이르는 여러 개인 저서와 『한국 팝의 고고학』·『귀환 혹은 순환』 등 다양한 형태의 편서·공저서를

펴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한기 | 소설가. 1985년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고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문예창작학부를 졸업했다. 201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여, 소설집 『의인법』을 펴냈다.

오형엽 | 문학평론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환상과 실재』 등 3권의 평론집과 『한국 모더니즘 시의 반복과 변주』 등 5권의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기성 | 시인.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불쑥 내민 손』·『타일의 모든 것』·『채식주의자의 식탁』과 평론집 『우리, 유쾌한 사전꾼들』·『백지 위의 손』을 펴냈다.

이상길 | 문화사회학자.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파리5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등 3권의 공저서와, 『푸코, 사유와 인간』·『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헤테로토피아』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교수로서 『인문예술잡지 F』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희일 | 영화감독. 1971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났고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단편영화 <언제나 일요일같이>로 데뷔하여, <탈주>·<동백꽃 프로젝트>·<후회하지 않아>·<백야>·<야간비행>·<남쪽으로 간다>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한국독립단편영화제' 대상, '광주국제영화제' 극실험부문 작품상,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최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이수형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문학, 잉여의 몫』과 연구서 『1960년대 소설 연구』·『이청준과 교환의 서사』를 펴냈다. 현재 명지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제니 | 시인.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200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아마도 아프리카』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를 펴냈다. 등단 이후 시와 노래가 어우러진 낭독 공연 <더블 플레이 포엠>을 진행해오고 있다.

임경섭 | 시인. 1981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했다. 2008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죄책감』을 펴냈다.

장철환 | 문학평론가. 1971년에 태어났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현대시』를 통해 등단하여, 연구서 『김소월 시의 리듬 연구』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 등에 출강하고 있다.

정과리 | 문학평론가. 1958년 충청남도 대전에서 태어났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문학, 존재의 변증법』부터 『뢰비우스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에 이르는 12권의 평론집과 『근대소설의 기원에 관한 한 연구』라는 불문학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 교수로서,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강석 | 문학평론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고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아포리아의 별자리들』 등 3권의 평론집과 『비화해적 가상의 두 양태』라는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로서,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황유원 | 시인. 1982년 경상북도 울산에서 태어났고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종교학 및 철학 전공)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3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를 펴냈다.